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8/23(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통신, 인터넷 등은 **8/22(日) 12:00부터**

문의: 제도혁신지원실 이종명 실장(02-6050-3491), 백지훈 과장(02-6050-3493), 김상우 연구원(02-6050-3492)

대한민국 ‘아이디어 리그’ 열린다 ... 태원님의 ‘코칭 리더십’ 첫 선

- 대한상의, 국가발전 공모전 ‘기업 부문 오디션’ 열어 ... 29일(일) 오전 10시50분 방영
- ‘기업 아이디어’로 시범경기 ... 최태원, 김택진, 이승건 등 심사위원으로 TV 데뷔
- 최태원 회장,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국민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 아이디어 1,700여건 쏟아져 ... 홈페이지(nationalproject.korcham.net)로 9월 24일까지 접수

‘국가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1등을 뽑는다면?’ 전국민 아이디어 리그가 안방을 찾아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상암동에서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기업부문 오디션 방송을 촬영했다”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파트너,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행은 방송인 전현무, 안현모가 맡았다.

‘대한민국 아이디어리그’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대한상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을 위한 민간 프로젝트를 찾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방송 버전이다. “이번 방송은 기업 부문 아이디어만을 모아 경쟁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①오디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②더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사전 공개한 예고 영상에서 “(공모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더 좋은지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심사해 주시면 좋겠다” 며, 아이디어가 현실화해서, 국가발전,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각오라 밝혔다.

최 회장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녹화 내내 각자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의 리더십을, 심사위원들간에는 재치와 배려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6명 기업인들의 심사평도 관심이다. 방송 제작진은 “각 분야의 최고 베테랑들이지만, ‘예능 초보’ 심사위원들의 엉뚱 매력과 쩐 카리스마로 방송가에서 탐나는 인물들로 주목받을 것” 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녹화는 태원님, 택진님, 승건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6인의 이색 케미도 눈길을 끈다.

오디션에 올라선 참가자들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연구소까지 각 기업의 구성원들로 총 24개 팀이 진출했고, 60초 아이디어 소개(1라운드), 5분 발표(2라운드) 등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국가발전 아이디어 1,700여건 모여 ... 창업·일자리(22%), ESG(20%), 보건·안전(15%) 이슈 많아

이번 공모전에는 현재 1,700여건의 출품작이 들어왔다. 기업 부문은 700여건, 대학부문은 100여건, 일반부문은 900여건이다. 주제별로 창업·일자리(22%), ESG(20%), 보건·안전(15%), 지역 발전·소상공인(11%), 저출산·고령화(9%), 문화·관광(7%) 순으로 집계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심사위원들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전해왔다” 며 “아이디어에 국민들의 의견이 더해지고 구체화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는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 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기대했다.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홈페이지(nationalproject.korcham.net)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총 상금 2억 2,900만원이 걸려있는 공모전의 접수마감은 9월 24일 까지다. ‘대한민국 아이디어리그’ 는 8월 29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90여분간 SBS를 비롯한 지역 민방을 통해 방송된다. 